

# ‘오감’으로 전하는 진리의 향기

‘문화’ 하면 왠지 비구니 스님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속가처럼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 미술, 방송, 사찰음식, 꽃꽂이 등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교현장을 누비기엔 비구니 스님들이 감성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다. 실제로 문화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포교에 열중하는 비구니

### 문화현장 속의 비구니 스님들

스님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불교예술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굳은 땀방울을 흘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문화포교의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기에, 문화의 시대인 21세기 불교계는 결코 두렵지 않다.



### 방송

“미 도미 레도 시도 파파파, 미도 미 레도시도 레레레 ♪” 시그널 음악이 흐르고 곧이어 약간의 걸쭉하지만 차분한 음성이 뒤를 잇는다. “안녕하세요 진명입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시길 바라면서...”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클래식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방송포교사 **진명 스님**. 8년 이상의 MC 경력자답게 이제는 전국 산사음악회의 단골 진행자로 손꼽힌다. 진명 스님의 출가이야기가 들어 있는 <출가>란 책에 보면 “출가를 극구 말했던 스님의 아버지가 출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를 타고 스님을 보러 절에 왔다가 누더기 승복을 입은 딸을 보고 산을 황망히 내려 갔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다.

불교방송에서 7년째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도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자와 후원금을 연결해 주는 등대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스님은 4년전 군법당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군불사 디딤’도 조직해 군포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음식 연구도 또 하나의 수행”

### 사찰음식

‘건강’이 현대인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자극적인 오산채를 쓰지 않는 담백한 맛의 ‘사찰음식’이 부상하고 있다. 선전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20여년 이상을 사찰음식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연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음식 포교를 시작했다. 1995년 불교 TV ‘푸른 맛 푸른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을 선보인 이후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스님은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2000년)이라

는 사찰요리책을 펴냈고, 몇 차례의 전시회도 열었다. 또한 수원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홍승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도 사찰음식 전문가다. 스님의 음식 키워드는 ‘퓨전 사찰음식’. 지난해 펴낸 <녹차와 채식>에서는 녹차와 사찰음식을 결합해 녹차의 효능과 색다른 맛을 한껏 살린 건강 사찰음식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 국내 첫 비구니 법패승

**음악** 1975년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 송암 스님이 보유자가 되면서 그 문화에서 영산재 의식절차를 전수받은 **동희 스님**(영종 자인사 주지)이 이수자후보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 때 비구니는 계보에 없다는 이유로 하나도 이수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년이 지난 1995년 비로소 영산재 이수자가 됨으로써 동희 스님은 우리나라 첫 비구니 법패승으로서의 계보를 세우게 되었다. 스님은 1970년 초부터 스님들을 비롯하여 일반 대중을 위해서도 법패를 가르쳐 왔으며, 현재는 영산재보존회 부설 법음대학 교수로,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그리고 예술종합대학과 윤문승대학에서 법패와 작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인 **현수 스님**과 **현준 스님**이 영산재 이수자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노래하는 비구니 1호’로 기록되는 **범조 스님**(서울 법천사 주지)은 1982년 첫 찬불가 CD집을 냈다.

또 산사음악회 섭외 1순위인 산사의 소프라노 **정을 스님**. 스님은 찬불가로 불음을 전하는 ‘음성포교사’다. 격주에 한 번씩 불교 TV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찬불가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문사 승가대학과 대구 동명사 등에서도 불교음악 특강을 열고 있다. 16년 동안 음성포교에 매진해 온 정을 스님은 지난해 발표한 앨범의 제목 ‘노래로 하는 기도’처럼, 불자들이 기도하며 부르는 노래, 부르는 대로 곧 기도가 되는 노래를 위해 오늘도 목청을 돋운다.

### “수행과 불화그리기는 하나”

### 미술

배낭 하나 달랑메고 떠났던 인도의 다담살라에서 10년만에 돌아와 지난해 불화전을 연 **귀산 스님**.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우선 방면에 글씨를 써 볼였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선정에 들었다. 행화를 그린 후 다담살라 왕궁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점안식에도 참여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수행과 불화그리기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0년이 흘렀다. 지난해 법연사 불일미술관에서 ‘갈라차크라 만다라’, ‘석체’와 ‘분체’를 번갈아 사용한 ‘바르도의 오 여래’, ‘4비 관세음보살’ 등 40여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수중 스님**(금사주지)은 연꽃이 갖는 의미를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어 15년 동안 연꽃그리기에 매진해 왔다. 진흙속에 피어난 연꽃을 보며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는 수중스님은

한지에 수묵담채를 이용해 연꽃을 표현한다. 스님은 그동안 5백여명에게 연꽃 그림을 보시해 왔다. 경기도 이천의 토굴에서 수행하며 작품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선도예가 **보광 스님**. 도자기에 달마선사의 다양한 모습과 산사의 풍경을 새겨 넣는다.

### 세계 각국 돌며 꽃꽂이 연구

**꽃꽂이** 불교꽃꽂이계의 개척자. 지연·정명·보명 스님에게 불어 다니는 수석이다. 꽃꽂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했던 70-80년대 당시 이 세 스님들은 꽃꽂이 연구·응용하며 패션과 연꽃등과 같은 다른 장르와도 새로운 접목을 시도 했다.

**지연 스님**(보림 꽃예술중앙회 회장)은 꽃과의 인연을 이렇게 회상한다. “일찍이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꽃과 나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르는 시늬를 냈을 정도니까요.”

**정명 스님**(연화플라워 회장)도 동대 약국에 놓인 꽃꽂이를 보고 당장 꽃을 사서 따라해보는 열의를 보였다.

**보명 스님**(연화꽃꽂이연합회 회장) 역시 부처님 앞에 마구잡이로 놓여지는 꽃이 죄스러워 전문 꽃꽂이 교육을 받았다.

이 세 스님은 불교꽃꽂이 문화가 융성한 일본 등지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꽃꽂이의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특히 정명 스님은 호주·네덜란드·프랑스 등 화훼산업이 발달한 유럽을 순례하며 동·서양의 꽃꽂이 문화를 접목시키는데 열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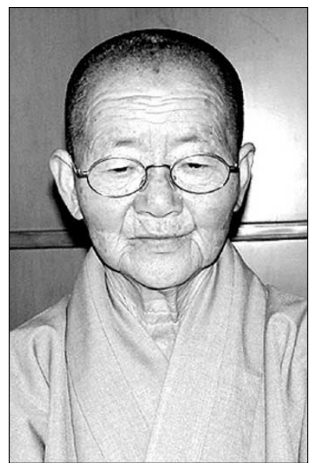
후학 양성이 시급하다는 보명 스님의 말처럼 불교꽃꽂이는 마땅히 배울 곳도 배울 스승도 흔치 않은 게 사실. 그래서 이들 스님들은 불교계 방송을 비롯한 삼선승가대학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주원·김은경 기자

## 한국의 비구니 스님 <4> 해해 스님

### 60년 동안 참선수행 한길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나는 늙어서 나이만 먹었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경주 사정동 흥륜사 흥륜선원장 **해해 스님**(세수 84세, 법랍 60세). 1944년에 입산해서 지금까지 60평생을 오직 선방에서 참선수행으로 일관해 오셨다.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함과 논 푸른 남자의 당당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그래도 한사코 말씀을 청하러 어렵게 수행의 삶을 풀어내 보이신다. 스님은 1921년 평안북도 동주군 안흥면의 한 시골마을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봐도 모든 것이 슬펐다는 스님은 끊임 없이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내면의 외침이 있었다. 19세 때 갑



화두를 가지고 오로지 일념으로 참구해 왔다. “이 법 만만 게 얼마나 좋은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라잖아요. 어렵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으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난 뭘 먹든 뭘 입든 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이 너무 좋을 뿐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3번 공양 외엔 참선정진하지요.” 스님은 그저 일상 삶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뭘지 모를 묵직한 힘이 느껴진다.

흥륜선원에는 26명의 스님이 수행중이다. 절이 경주시내에 있다보니 산중 선방과 달리 자동차 소리와 사이렌 소리 등 세간의 소리가 간간히 흘러들어온다. 그럼에도 매년 선방에는 공부하려는 스자들이 몰려와 줄을 선다.

이번에도 22명이 들어가면 적당할 방에 26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중이다.

“스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그 연세에 절대 시자의 시봉 하나 안받고 뭐든 혼자 다 하십니다. 작년까지 누더기 한 벌만 입고 계셨지요. 우리가 추워하니 불을 때지 방에 불도 없이 지내셨습니다.” 상좌스님이 어른스님에 대해 슬쩍 귀띔해 줬다.

어린 시절 오로지 금강산에 들고 싶었던 해해스님. 어느덧 금강산의 모습으로 모든 선계를 품고 계셨다.

경주=배지선 기자

### 흥륜사를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정착

### 시봉없는 ‘84세’ 웃 한벌로 생활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출가의 마음을 세우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24세에 입산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무작정 인연 따라 찾아간 곳이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이다. 입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 후 1년 만에 해방을 맞고, 해인사 국일암, 동화사 양진암 등 전국 선방을 두루 다니며 참선 수행하다가 71년 이차돈 순교자인 지금의 흥륜사로 들어와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정착시켰다.

스님이 처음 금강산을 찾을 때는 ‘사명대사의 신통’이나 알았을 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몰랐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수행하시는 법안 스님, 광보봉 스님, 선경산 스님 등을 보고 ‘내가 나를 찾아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깊이 느끼고 참선수행을 하게 됐다. 해방 후 남으로 내려와 무불스님을 계사로 오계를 수지하고,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향곡스님께 받은

## 「천문역학 六壬」 誌 창간기념 할인판매 안내

(2월 4일부터 - 2월 20일 까지 15일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는 급변 당국의 허가를 얻어 『천문역학 六壬』 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오는 2월 20일 3월 창간호가 전국에 배포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래의 육임서를 한시적으로 30%할인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됩니다.

할인도서 품목	종전가격	한시 할인 가격
■ 육임개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	1,750,000
■ 육임개정비법 핵심판	1,300,000	910,000
■ 육임개정비법 핵심판 휴대용	1,500,000	1,050,000
■ 육임개정비법	350,000	240,000
■ 육임개정법 휴대용	310,000	220,000
■ 호사 육임 강의록	410,000	287,000
■ 호사 육임강의 비디오 CD	900,000	630,000
■ 육임 신수비결	300,000	210,000
■ 오행제례의식집	150,000	105,000
■ 태아길일길시선택분만비법	74,000	51,000
■ 육임지두생활비법	15,000	10,500
■ 육임비요형이상법	150,000	105,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91,000
■ 육임세밀정단법	100,000	70,000

● 문의 : 02-993-8680(담당 정주연)  
 ● 입금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배 본 : 입금후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 전국 「육임학당」 수강 접수안내

본회는 2월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육임학당전국수료식을 거행하여 각 지역에서 육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2월1일부터 다시 학당을 여니 아래 일정에 맞춰 등록해 주십시오

육임학당	일정	연락처
육임학당 「전주속」	2월 8일(日)	063-284-7714
육임학당 「광주속」	2월 9일(月)	062-224-8680
육임학당 「진주속」	2월 10일(火)	055-755-1644
육임학당 「부산속」	2월 11일(水)	051-756-0141
육임학당 「대구속」	2월 12일(木)	053-624-8680
육임학당 「호시속」	3월 13일(金)	02-993-8680
육임학당 「강남속」	2월 14일(土)	02-525-3039

(이곳 강남속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에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등록비 1백5십만원  
 ■ 교 재 호사 육임강의록 상(학습서) 하(활용서)드림  
 ■ 마 감 2004년 2월 7일까지 등록 요망  
 ■ 강 사 고복자 호사  
 ■ 기 간 3개월 13주 52시간

● 문의 : 위 각 학당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 입금 : 우리은행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 익 법 인 한국 육 임 학 회**